

아시아공동체론 에세이

문화콘텐츠학과

201621692

박채원

출석번호 48

아시아공동체라는 과목명이 인상 깊어 수강하게 된 과목이었다. 우리는 아시아라는 범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에 얼마만큼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까? 아시아 인종임을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주로 서구에 의해 아시아인으로 규정되며 아시아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때문에 아시아공동체라는 과목명을 봤을 때, 아시아공동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아시아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아시아인으로서는 어떠한 정체성, 소속감을 가져야 할까와 같은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시아공동체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아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 첫 강의에서 주어진 질문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시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한국, 중국, 일본을 일컫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동아시아? 아니면 중앙아시아, 더 넓게 인도,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하는 범위까지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모호하며 국가 별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하여 정의하고 있는 범위 또한 재각각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로 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이다. 19c에는 아시아, 이후 20c에는 유럽 그리고 21c인 지금은 다시 아시아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 EU라는 유럽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들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 관심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는 아직까지 아시아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아시아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아시아 역내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아시아의 범위는 동아시아였다.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하여 역내 협력과 갈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해주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한일 협력과 갈등에 대한 내용이 강의 전반에 걸쳐 여러 번 등장했다. 교수님들은 현재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장애 요인으로서 한일 간 갈등을 이야기하시며, 한일과 더불어 중국이 힘을 합쳐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에 대해 들으면서 한일 간 문제가 단순히 양국의 문제가 아닌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학기 중간에 진행되었던 일본정책연구센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과 양국의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컨퍼런스에서 일본 재무성의 나카야마 미즈테르 주계관님은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한일 경제 협력, 아시아 역내 경제 협력의 전개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으며 한국과 일본이 직면해 있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컨퍼런스 전반에 걸쳐 강조하셨다. 일본 재무성의 주계관님과 더불어 관련된 분야의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들으면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아시아공동체론의 마지막 수업에서는 이러한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전개와 변화, 경제 협력과 정치 문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었는데, 이 수업이 가장 인상깊게 남았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정치적인 갈등 문제로 양국 협력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서로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과정과 경제 협력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수업은 앞서 들었던 한일 관계에 대한 수업과 컨퍼런스를 통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이 외에도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ASEAN의 중요성과 이러한 ASEAN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알아 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의 구본규 교수님의 뉴질랜드의 한국 이민자에 대한 수업을 통해 초국적인 사회적 장과 뉴질랜드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뉴질랜드 통합 노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평소 알고 있었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범위가 확장될 수 있었고 아시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과 그만큼 경제적으로 아시아가 잠재력이 많은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아시아공동체론은 윤강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남는 것이 많은 수업이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수업들 외에도 중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등 아시아로 규정되는 다양한 나라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윤강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수업을 연결짓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는 수업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워갈 것이 많은 수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번엔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이 오셔서 어떠한 주제로 수업을 해주실까 매번 기대가 되는 수업이었다. 또한 내가 아시아공동체에 속해있으며, 아시아가 얼마나 매력적인 지역인지, 그리고 아시아공동체 내에서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역할을 해야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수업이었다.